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리며, 2021년 12월 저희 가정의 소식과 기도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레크 레카 נָא לָךְ נֶאֱמַר לְפָנֶיךָ לְעַבְדְּךָ לְעַבְדְּךָ לְעַבְדְּךָ לְעַבְדְּךָ 네 자신을 위해서 가라**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 까지 우리는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 할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여행은 신나고 설레이는 여행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힘들고 고된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여정을 시작할 때 기대에 부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행 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원하는 대로 계획한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여정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누군가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도 하겠지만 특별히 사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창 12:1 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람은 이 음성을 듣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정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람이 떠난 이유는 그의 아버지 데라가 경제적인 이유로 떠났던 것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써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아브람에게 있어서 너의 익숙한 것에서부터 모두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의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떨어져 나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의 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라!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1)*

“가라” 라는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은 ‘레크 레카’입니다. 원문의 뜻은 ‘네 자신을 위해서 가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떠난 곳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의 한 도시로써 히브리어로 ‘우르 카즈덤’ מִיּוֹרְדֵינִים קַזְדִּים 입니다. ‘악의 처소, ‘귀신들의 처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8:4 에서도 마지막 때에 “바벨론에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브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만 아름답게 감당하지는 못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간 아브람은 기근이라는 위기를 만나게 되고 양식을 구하려 애급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브람의 계획은 그저 양식만 구해서 바로 돌아올 생각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내인 사래의 아름다움 때문에 해를 당할까 두려워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애급 사람들은 사래를 바로 왕에게 받치게 됩니다.

아브람의 잘못은 약속의 땅을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만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급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위대하지는 않았습니니다. 떠나라고 한 부르심에 순종한 그 믿음은 대단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그 여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발전해 갑니다.

결국 순종하여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아브람 אַבְרָם 은 후에 아브라함 אַבְרָהָם 이 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ה 가 추가되었습니다. ה는 하나님 이름인 야훼의 중심에 있는 문자입니다. 즉, 순종하여 떠난 아브람은 하나님이 그와 그의 인생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받는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불편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엄청난 시작점이 되어줍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서는 하나님의 꿈이 아브람에게 부여된 그 날 그 순간 아브라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가정 소식**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12월 첫째 주 하누카(수전절)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저녁에 브엘쉐바 역 앞에서 거리 찬양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거리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배 장소에 대해 무지개로 확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브엘쉐바 거리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도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 무지개가 뜬 그 자리에서 거리 찬양을 시작하였습니다. (브엘쉐바 역 앞)

- ✓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담대히 감당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한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 주소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늘 입에 넣어 주소서.
- ✓ 에덴이 유환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 용기를 내어 큰 목소리로 찬양하게 하시고 히브리어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 ✓ 가족의 건강과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둘째, 지난 여름부터 저희 가정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마음들을 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가지고 왔던 이민 가방이었는데, 그 가방은 더러워져서 버린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꿈에 아주 깨끗하게 세척되어 새 가방같이 되어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가운데 이동을 말씀하시나?’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두 번째 꿈에서 “지금 한국으로 가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세 번째 꿈에서 “북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못들은 척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힘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곳 남방 땅 네게브 광야에 온지 내년 1월이면 3년 반이 됩니다. 주님 주신 마음은 지금까지 섬겨온 네게브 야하드에서 마중물의 역할은 다 하였고 우물물이 솟아 오를 때 마중물은 제일 먼저 솟구쳐 흘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추수의 때이니 오래전부터 주셨던 “알곡을 모으는 요셉의 창고” 비전을 지체치 말고 시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너무 잘 정착한 상황에서 저희로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고, 게다가 북쪽 어디 라고는 정확히 말씀하지 않으셨기에 6개월 정도를 기도하면서 알아듣게 말씀해 달라고 간구해 왔습니다. 성령의 말씀들을 통해 저희에게 주어진 네게브 광야에서의 삼 년 반의 시간이 이제는 마쳐졌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셨고, 결국 이 주 전에 저희는 이 곳 네게브를 떠나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도시들을 한 두 달씩 옮겨 다니며 내년 초막절까지 8개월 정도의 기간을 전도와 예배 여행을 다니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솔직히 아이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쉽지 않은 시간을 통과하며 지금 학교에 적응을 잘 했고 히브리어도 이제 좀 편해지고 친한 친구들과 친구 관계들도 안정이 되었는데 또 떠나야 하는가... 에텐이는 울었고 유환이는 몇 번이나 그냥 여기 학교 다니면 안되냐고 물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떠나라면 떠나야 되는 걸 아니 지금은 받아들이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 기간 홈스쿨을 하며 이 여정을 함께 할 것입니다.

사실 저희에게는 8개월 후의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더 남으라고 하실지 (그렇다면 어디에?) 아니면 한국에 가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요셉의 창고 농업/교회 공동체를 시작하라 하실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돌아 가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정을 다니다 보면 말씀하시겠지 하면서도 아이들을 떠올리면 생각들이 복잡해 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차 한대 실을 만큼만 간단히 해서 떠나야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인 것도 같습니다. 2022년 2월까지 네게브에 머물며 브엘쉐바 역 앞에서 거리 찬양과 전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의 여정은 이미 시작이 된 듯합니다. 그 후 3월 1일 출발하여 먼저는 갈릴리 지역에서 3개월 머물 예정이고 그 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새 발걸음이 기쁘고 설레기도 하지만 가보지 않은 길이라 믿음이 연약해질 때면 걱정도 됩니다. 이 곳에서 남은 시간들을 마무리 잘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기도와 물질로 섬겨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곳 이스라엘에서 저희도 여러분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